

## 신앙의 성장(成長)이란 무엇일까요

삶과 지식에 있어서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영적인 원리들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알지못함과 앎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살펴봅시다.

### 1.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summary 해 봅시다.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 말했습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21절부터 율법외에 나타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義)**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4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 믿음의 의는 구약성경의 지지를 받는 다는 것을 논증. 그들도 죄사함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5장은, 믿는자에게 주신 특권들. 하나님과의 교제회복, 즐거움. 사랑의 확신. 새로운 역사관.

6장은, 침례식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의식화교육.

7장 초반은, 결혼법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은** 자라는 다음단계의 의식화교육.

그러다가 ‘성화의 실제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 예로 제시합니다.

율법이 좋은 것이긴 하나, 그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어, 괴롭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성화의 비결은 죽음을 경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오늘 말씀도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 오늘의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 얻은 구원, 의롭다함을 얻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데 신령한데, 나는 죄아래 팔렸도다.

팔린다는 것에 상징되어있는 의미는, 힘없이 팔려갈 수 밖에 없는 무력감을 호소한 것입니다.

\*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자이며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며  
이미 죽은 자이며, 이것을 침례로 간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렁에 빠진 것인지요.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우리는 바울의 지적세계를 봅니다.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설교제목에 나와있는 것처럼.

## II. 알지 못하는 것

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For what I want to do I do not do, but what I hate I do.” 그는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행동말인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바울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스테반순교의 일에 동참한 일은 있었으나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것은 없다하더라도 바울도 인간이고 사도로서 살아온 자기의 삶의 내용은 그것들과의 격렬한 내적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갯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졸았습니다.

마태 26:36-45에서 그 시간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이었습니다. 영적위기의식이 가득한 예수는 고민하고 긴장되어 제자들에게 중보기도요청을 하고, 나아가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첫 번째 기도부터 피곤해서 잤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기도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원대로 되지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왜 원대로 되지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알게 됩니다.

## III. 아는 것.

16.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표현은 내 안에 사탄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Resident Evil은 아닙니다. 우리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 말은 사탄의 내주나 귀신 들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인간(人間)의 타락한 본성(本性), 즉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 안에 자리 잡은 죄의 세력, 또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傾向性)을 의미하며, 사탄(마귀)이 직접 그 사람 안에 거주하거나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마귀사탄은 지배하고 원격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정욕, 죄성등을 사용하여, 자기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끌어갈려고 할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성화의 과정, 과정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도전하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對象)입니다.

소결론 :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결국, 바울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아는 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성찰(省察)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요, 주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과거는 나름대로 찬란(燦爛)했습니다. 예수 믿기전에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믿기전: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3:4-6)

믿은 후: “내가 수고(受苦)를 넘치도록 하고 옥(獄)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破船)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8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지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8고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늘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후11:23-28)

그는 위대한 개척자(開拓者)요 선구자(先驅者)요, 선교사(宣教師)요 신학자(神學者)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完全)하다고 선언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 고백하였고 심지어는 자기를 죄인중의 괴수(魁首)라고 한 것입니다(딤후1:15).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수신자를 당황(唐惶)하게 할 만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실(眞實)하기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어,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완전이나 위대한 것으로 위장(僞裝)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그는 위대한 성자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세계와 본질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사도바울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IV. 깨달음의 적용점

##### 1.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정직(正直)**해야 합니다.

7장에 ‘나’, ‘내가’ 가 29번이나 등장합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과소평가(過小評價)해서도 안됩니다만, 과대평가(過大評價)해서도 안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더도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기자들의 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들의 정직성(正直性)을 봅니다. **다윗의 글을 읽을 때** 우리는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보이지않습니다. 처절한 자기고백이 있습니다.

### 시편51:3-12절을 봅시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塗抹)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聖神)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自願)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 **2. 우리는 자신을 항상 살피고 있는 바울을 봅니다.**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내가 지나친 염려를 하고 사는 지, 내가 잘못된 것에 빠지지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말했습니다. 고전10: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없어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 10:1-12)

### 베드로사도도 말합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念慮)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베드로전서 5:6-9)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나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향성이 있고, 사탄에게 교두보를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항상 경계심(警戒心)을 가지고, 또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다보는 자기스크린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해야합니다. 이것을 바울에게서 배웁시다. 또 하나는 ...

### 3. 진정한 고백은 새로운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請)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祈禱)할찌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罪)를 범하였을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罪)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懇求)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 5:16) \*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의 파워를 봅니다.

8복(福)중 1,2번이 됩니까? 1.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마태 5:3-4)

2.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임니다.

시편(詩篇)의 수많은 고백과 간구와 참회시들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으로 새로운 영적인 진보가 있고,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성화(聖化)문제, 즉 죄(罪)의 문제로 근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근심하지 말라고 교훈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말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군데서 근심(慍心)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고후 7:9-10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慍心)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慍心)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慍心)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慍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悔改)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慍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다음시간에 이 바울의 고뇌가 어떻게 해결되는 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지 못하는 것에서 앞으로>였습니다.**

바울은 처음엔 자기를 몰랐습니다. 왜 원하는 것을 행치않고 원치않는 것을 행하는 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자기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충격적(衝擊的)인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진보(進歩)일까요 후퇴(後退)일까요. <진보>입니다. 병(病)의 원인을 발견한 것이기에, 병원(病菌), 병원체(病原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인도할까요 다음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에게 정직한 바울, 항상 자신을 살피고 있는 바울, 그리함으로 새로운 신앙의 세계 성숙과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귀감이요 우리가 따라가야할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 우리에게도 영적통찰력을 주셔서 영적진리를 분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